

사우디, 2005년도 수출 급격히 증가

- 2005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은 지속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% 증가한 1,74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 이브라힘 알 아사프 사우디 재무부 장관은 2005년도 석유부문 수출은 전년대비 45%가 증가한 1,547억불에 달하고, 비석유부문은 전년대비 20% 증가한 184억불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음.
- 이에따라 2005년도 경상수지흑자는 전년도의 519억불 대비 67.7% 증가한 871억불에 달할 전망이다.
- 한편, 정부재정수입은 연초 편성예산 747억불보다 거의 두배가 많은 1,480억불, 재정지출은 예산 747억불보다 21% 늘어난 909억불이 예상되어 재정수지는 사상 최고치인 571억불로 전망됨.
- 재정수지흑자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2005년도 재정흑자 중 376억불을 정부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전년말 기준 1,642억불이었던 정부부채를 GDP의 40% 수준인 1,267억달러로 낮출 예정임.
- 한편, 유가의 급등에 따라 사우디는 2005년도 747억불의 균형예산에서 2006년도에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였는바, 2006년도 정부예산에 의하면, 재정수입은 1,040억불, 재정지출은 893억불로 147억불의 재정수지 흑자를 계획하고 있음.

- 풍부한 오일머니의 유입에 따라 경기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정부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있어 비석유부문 인플레이션은 1.2%내에서 억제되고 있음.

-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하여 세계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장밋빛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, 실제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 프로젝트계획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경기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음.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